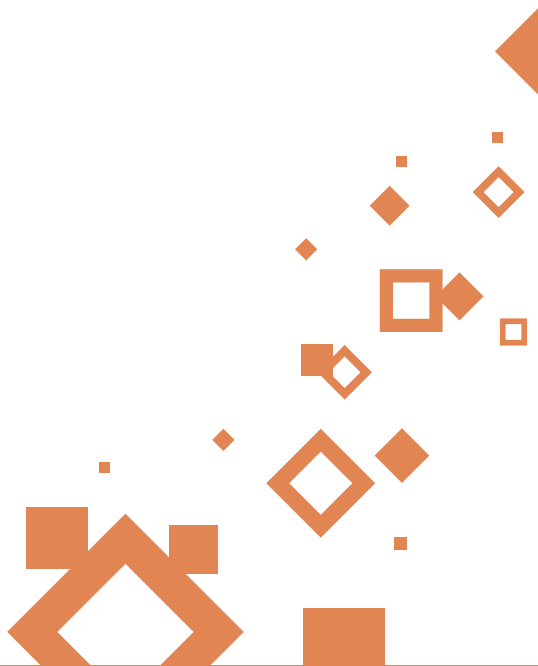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필암서원



목차

유네스코 서계유산과 '한국의 서원'

01. 유네스코 세계유산	05
02. 서원의 이해	06
03. 서원의 주요기능	08
04. 동아시아 사립교육기관과 비교	14
05.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16
06.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17

장성 필암서원

01. 장성 필암서원 개요	23
02. 강학	30
03. 제향	36
04. 교류와 유식	42

장성 필암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44
-------------------	----

01. 유네스코와 유산

세계유산

세계유산협약에 근거하여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인정되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고, 현재와 미래 세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으로 중요한 가치

※ 근거: 세계유산협약 및 운영지침

탁월한 보편적 가치 핵심 키워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준 10개 중 **1개 이상의 기준**을 충족했는지
- **완전성과 진정성** 개념을 충족했는지
- 가치를 보호 및 관리할 **보호관리계획**을 갖추었는지

※ 등재 기준, 완전성과 진정성, 보호관리계획을 모두 설명함으로써 세계유산임을 알릴 수 있음



세계유산협약 전문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한국의 서원’ 목록

서원명	건립 / 사액 연도	주향 인물	비고
영주 소수서원	1543년/ 1550년	회헌(晦軒) 안향(安珦) (1243~1306)	사적 (1963)
함양 남계서원	1552년/ 1566년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 (1450~1504)	사적 (2009)
경주 옥산서원	1572년/ 1574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 (1491~1553)	사적 (1967)
안동 도산서원	1574년/ 1575년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사적 (1969)
장성 필암서원	1590년/ 1662년	하서(河西) 김인후(金麟厚) (1510~1560)	사적 (1975)
달성 도동서원	1605년/ 1607년	한훤당(寒暄堂) 김공필(金宏弼) (1454~1504)	사적 (2007)
안동 병산서원	1613년/ 1863년	서애(西厓) 류성룡(柳成龍) (1542~1607)	사적 (1978)
정읍 무성서원	1615년/ 1696년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 (857~?)	사적 (1968)
논산 돈암서원	1634년/ 1660년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	사적 (1993)

02. 서원의 이해

서원이란?

- 조선시대 유학자들에 의해 설립된 사립 학교
- 조선 중기 이후 각지에 세워지며 성리학 연구와 교육, 선현先賢 제사, 지역 사림士林의 교류와 유식을 담당하는 공간
- 제도적 영향이 덜 미치는 향촌까지 통치이념 전파, 지역 문화 선도

서원의 기원

- 명칭은 중국 당唐 현종玄宗, 재위 712~756년 시기 서적의 출판과 활용, 관리를 담당한 '여정서원'이 최초
- 송宋 시기 국립학교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자 문인들에 의해 서원 건립이 유행하며 교육기능, 제사기능, 도서 보관 기능 등의 성격 형성
- 남송南宋 시기 주희朱熹, 1130~1200가 세운 '백록동서원'은 학규, 관리기구 등의 제도를 갖추고 강학 활동이 활발하여 동아시아 서원의 모범이 됨
- 백록동서원은 조선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서원(소수서원)'의 모티브

한국에서 서원 성립

- 1392년 조선 건국 이래, 태조太祖, 재위 1392~1398는 국립교육기관 진흥이라는 방향 제시, 국학(성균관)과 향교를 통한 인재 양성 권장

- 15세기 후반 향교에서 교관의 질적 수준 저하, 사족들의 출입 기피 등 문제 발생
- 고려 말 성리학이 도입된 이후 형성된 사람들은 향촌 중심의 교화 모색, 중국의 서원제도 주목
-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의 백운동서원(훗날 소수서원) 건립 이후 이황李滉, 1501~1570에 의해 본격적으로 서원 보급, 확산

서원의 구성원: 사람

- 향촌 지식인집단
- 성리학을 토대로 하는 모범-완성된 인간이 되는 것이 목표
- 성리학 교육과 모범적인 인간인 선현을 기리는 제향 중시
- 관련 자료: 『원장안院長案』, 『원임안院任案』, 『입원록入院錄』 등

구분	역할
원장院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원 업무 총괄 ◉ 서원을 대표하는 실질적 책임자, 관리 주체 ◉ 임기는 1~2년, 대체로 연임 허용
원임院任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을 도와 서원 운영 담당 ◉ 도감都監, 장의掌議, 유사有司로도 불림 ◉ 서원 내 규찰, 재정 문제 담당 ◉ 수업 준비 및 원생 교육도 담당
원생院生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천거자의 추천을 통해 입학 ◉ 성리학 경전 중심의 입학자격 시험을 통해 최종 선발 ◉ 선발 과정은 서원별 자율적 운영

서원의 규약(規約)

- 원규院規 : 강학 · 제향 · 서원의 관리와 서원 운영 등 전반에 걸친 규약
- 학규學規, 강규講規 : 서원 원규를 세분화한 것
- 절목節目 : 실제 강학이 개설되기 직전에 작성한 강학의 시행 세칙
- 완의完議, 입의立議 :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서원의 재정

- 대체로 지역 사림의 자발적 출연을 통한 토지, 노비, 기부로 경제적 기반 마련
- 사액서원에는 서적, 토지, 노비 등이 제공되나 운영과 관련한 통제는 없음
- 관련 자료: 『전답안田畝案』, 『노비안奴婢案』, 『전장기傳掌記』, 『도록都錄』 등

03. 서원의 주요 기능: 강학, 제향, 교류와 유식

강학

- 성리학 교육을 통한 후속 세대의 양성
- 개별학습인 독서, 공동학습인 강회의 병행
- 교재는 주로 주희와 제자들이 정리한 성리학 관련 서적

- 교육 과정에서 과거시험은 철저히 배제
- 강학 활동은 ‘자발적 강학으로서 회강會講’과 ‘공식적·의례적 강학으로서 강회講會’로 구분

강학의 종류

구분	내용
거접居接	집단적인 학습 활동 또는 연중행사로 하던 글짓기 경연
문화文會	주로 서원에서 강학 후에 시문을 창작하고 서로 비평하는 모임을 갖는 일. 시회詩會와 같이 쓴다.
거재居齋	유생들이 숙식을 하면서 공부하는 일
순제旬題	지방의 향교鄕校 유생儒生에게 열흘마다 글 제목을 내어 주고 제 집에서 제술製述하여 바치게 하던 일
통독通讀	서원 유생들에게 제술製述, 강서講書를 시험하는 일
백일장白日場	각 지방에서 유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글짓기 시험을 실시하던 일. 낮 중에 시험과 평가를 마치는 것을 말하기도 함

향사 후의 강회 講會	향사 ^{享祀} 를 지낸 후, 「백록동규 ^{白鹿洞規} 」나 「여씨향약 ^{呂氏鄉約} 」 같은 교화서를 낭독하고 강생 ^{講生} 이 강장 ^{講長} 앞에서 진강 ^{進講} 을 하는 순서로 진행. 진강을 하는 방식은 지[柱: 경전의 한 장의 내용을 적어 놓은 쪽 종이]를 뽑아 거기에 적힌 구절을 강생이 외우고 해석하면, 강장은 그 의미를 묻고 강생이 이에 대해 답하는 형식이다.
----------------	---

강학 의례

구분		내용
홀기를 갖춘 공식적 의례	정음례 庭揖禮	서원에 속한 사람들이 강당 앞뜰에 동서로 나누어 서서 서로 절하는 절차. 읊례 ^{揖禮} 는 두 손을 마주잡고 머리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정중한 인사법이다.
	상읍례	큰 읊 ^揖 으로 서로간 인사를 나누는 것
	강습례	일정기간 배운 것을 테스트 하는 의례. 무성서원의 경우는 진설 ^{陳設} :신위가 없이 배설한 허위의 진설을 말함-첨배 ^{瞻拜} :허위에 배독하는 것을 말함-상읍 ^{相揖} :서로간 읊례를 거행함-승당 ^{升堂} :당에 오름-독규 ^{讀規} :규약을 읊음-배독 ^{拜讀} :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읽음-진강 ^{進講} -예필 ^{禮畢} 로 이루어져 있다.

구분		내용
관습적 의례	경독 敬讀	강학에 앞서 백록동규 ^{白鹿洞規} , 사물잡 ^{四勿箴} , 심잠 ^{心箴} , 경재잠 ^{敬齋箴} , 숙흥야매잠 ^{夙興夜寐箴} 을 낭독하는 것이다.
	개접례, 입접례	강학의 모임을 시작하는 의례
	파접례, 후접례	강학의 모임을 마치는 의례
	귀가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행하는 의례
	수창시	수창시는 ‘회강’에 참여한 소회나 깨달은 것을 시로 지어 공유

제향

- 해당 지역 관련 선현에 대한 제향
- 한국 서원에서 가장 중시되는 기능
- 선현의 학덕과 행의 추앙,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 결속을 다지는 기회

제향의 종류

구분	명칭	시기
정기	춘추 향사	매년 봄·가을
	삭망례	매월 초하루, 보름
	정알례	매년 정월 초 5일이나 7일

구분	명칭	시기
비정기	이안례	서원에 일이 있어 임시로 위패를 옮길 경우
	환안례	위패를 다시 제자리에 모실 경우
	위안례	불시에 재난을 입었을 경우
	예성례	위패를 새로 봉안하거나 제외시킬 경우
	사액례	사액을 받을 경우
	치제	국가에서 제관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는 경우



입제



성생례



집사분청



분향례



사우입장



제물근봉



초헌례



중헌례



철반두



파제



향약낭독



음복례

서원에서는 춘추 향사를 가장 중요한 의례행위로 규정, 준비부터 거행까지 2일 소요

교류와 유식

- 교류(交流): 서원의 구성원, 서원에 방문한 명사, 서원과 서원 사이의 다양한 인적·물적 교류
- 유식(遊息)
 - 쉬고 노닐면서 함양하는 것. 『예기』, 학기에 군자는 학문할 때 장수(藏修: 늘 학문에 대한 생각을 품고 익히는 것)하면서도 유식한다고 함, 유식은 자연경관 속 그것과 어우러지며 이루어짐
 - 천인합일이라는 인격수양 방식의 일환. 문학활동을 통해 인성의 품격(品格)을 높여가는 현상이기도 함
- 해당 지역의 지적 활동을 선도하는 거점으로 사회적 활동과 공론 결집
- 지역 여론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소통하는 데 선도적 역할
- 지식인들의 회합 장소, 토론이나 학습, 교류의 개방된 공간 기능
- 남전향약, 예안향약, 해주향약 등 향약을 통한 향촌 교화의 중심지 역할
- 관련 자료: 『심원록』 등

04. 동아시아 사립 교육기관과 비교

중국에서 서원이 생긴 이래 한국, 일본에서 중국의 서원제도를 수용하여 독자적인 지역문화 형성을 이루었다

동아시아 사립 유학교육기관 비교표

	중국의 서원	한국의 서원	일본의 시주쿠
도입 시기	7세기	16세기	17세기
설립 목적	유학 지식인 양성 → 관료 양성 관학 보조	성리학 지식인 양성 지역 기반 선현 제향	지식인 양성
교육 대상	제한 없음	지역 유생	무사, 가신 그룹
교육 학문	유학	성리학	유학, 의학, 산학, 서양학문 등 다양
제향	인물	주로 공자 등 성현	지역단위 선현
	의례	일부 서원만 유지	현재까지 존속
사회적 기능	국가정책 따라 변동	지역 공론 중심지 지역 교화 중심지	크게 중시하지 않음
건축	입지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등	제향인물 연고지 자연 경관 고려
	기능	강학-제향-장서	접근성 고려 도시공간

건축	구성 요소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반지 과거합격 비석군	사우 강당, 재사 도서관 누각, 정자	강당 재사 도서관
	배치 유형	서원별 개별성 강함	공통의 배치 유형 존재	단일건물 중심
	경관 구성	인위적 폐쇄적	자연친화적 개방과 관입 구현	인위적 폐쇄적
	지역 성	입식 생활 구조 의자, 화로	좌식 생활 구조 온돌, 마루의 조화	좌식 생활 구조 다다미, 화로

06. '한국의 서원'의 세계유산적 가치

등재 기준

- 세계유산 등재 기준 '(iii)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 충족
- '한국의 서원'은 성리학과 관련된 한국의 문화적 전통의 탁월한 증거로 교육과 사회적 관습의 많은 부분이 오늘날까지 지속
- 중국에서 들어온 성리학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형, 토착화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독보적 증거

완전성

- 서원과 부속건물, 정문, 하마비, 기념비를 비롯해 능선과 계곡 등 인접환경으로 이루어진 건물 및 건축요소 갖추
-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여주는 속성 갖추

진정성

-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은 기본적으로 원래 모습 유지
- 활용과 기능, 전통도 대부분 지속되어 온 내용 그대로 유지
*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은 크게 축소
- 서원의 위치와 주변환경, 무형유산, 서원의 영적 측면도 전반적으로 유지
* 두 곳의 서원은 최초 위치에서 옮겨짐

05. 조선의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

	서원	향교	성균관
설립 주체	사림	지방정부	중앙정부
분포	지역별 다양	군현별 1개	수도에 1개
설립 목적	인성교육 선현제향 사림 활동 기반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관료 양성 교육 공자 제향
사회적 역할	지역 공론 형성 지역 문화 교류		유생 공론 형성
입지	제향 대상과 관련 교육 목적에 부합	지방 행정 중심지	수도
구성 요소	사우(선현),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경각), 누각, 정자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문묘, 전사청 강당, 재사, 도서관
건축 유형	제향-강학-교류, 유식	강학-제향	강학-제향

- 서원은 특정 유학자를 제향하고, 제향자의 학문적 연원이 가장 중시됨
- 서원의 입지는 제향 인물의 강학처, 수양처, 거주지, 묘소 등과 관련

수려한 주변 경관

- 주희는 백록동서원이 아름다운 산수로 둘러싸여 시끄러운 시내가 아니기에 모여서 강학하고 글쓰기 좋은 곳이라고 함
- 이황은 국학이나 향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 구애됨이 많다고 하며 서원은 한적한 들, 고요한 물가에 세워져 학문을 하고 인재를 얻기 좋다고 함
- 많은 서원들이 강, 산, 계곡, 들판 등 시각적으로 조망이 탁월한 곳에 입지
- 특히 정자, 누각은 선비들의 교류와 유식 공간으로 자연경관이 건축의 한 요소로 포함되도록 구성

‘한국의 서원’ 건축 특성

보편성

- ‘한국의 서원’은 16세기 중반부터 약 1세기 동안 집중적으로 건립되며 제향공간, 강학공간, 교류와 유식공간으로 점차 정형화
- 16세기부터 한국 건축에서 보편화된 마루와 온돌의 유기적 결합으로 좌식형 생활습관을 토대로 교육기관으로서 정착

보호 및 관리계획

- 대한민국의 문화재보호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등을 통해 법적 보호
-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어 서원 및 주변 지역 보호 및 관리
- 문화재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지정되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축, 증축, 개축을 엄격하게 규제

연속유산으로서 ‘한국의 서원’

연속유산이란

- ‘연속유산’이란 함께 모였을 때 세계유산으로서의 특정한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산
- 각 유산은 전체 유산의 가치에 기여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하고, 다른 구성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여야 함
-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은 9개 서원으로 구성된 국내 연속유산

‘한국의 서원’ 입지 특성

제향하는 선현의 연고지

- 퇴계 이황은 서원에 대한 지원과 사액을 요청하며 선현先賢들이 살던 곳에 서원 건립 주장

강학공간

- 건물: 강당, 재사, 장서각, 장판각 등
- 강당은 대개 대청마루와 좌우로 독립된 온돌방 설치하는 형식
 - 강당: 마루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고, 온돌방은 원장과 원임이 기거하는 공간으로 활용
 - 재사: 주로 강당 좌우의 동재, 서재로 구성, 학생들의 기거 공간
 - 장서각, 장판각: 목판이나 도서 보관

교류와 유식공간

- 건물: 누각, 정자 등
- 누각은 누정, 누마루로도 불리며 서원 전면부에 설치, 한국 서원의 가장 독특한 전각으로 교류와 유식이라는 서원의 사회적 활동이 표현된 건축
- 연못, 석각 등을 통해 성리학적 이념을 투영하거나, 성리학 적 가치가 반영된 수목을 식재하기도 함

기타

- 고직사, 교육시설, 하마비, 홍살문, 기념비 등
- 하마비, 홍살문 등은 서원의 진입을 알려주는 기능
 - 고직사: 서원의 관리와 행정지원을 위한 사람들 거주
 - 교육시설: 대체로 서원 건축물 따라 목재 사용, 전통 건축기법 토 대로 건립
 - 하마비: 선현에 대한 예를 표하고자 말에서 내릴 것을 가리키는 비석
 - 홍살문: 기둥 두 개 위에 화살 모양의 나무를 나란히 세우고 중간에 태극문양이 그려짐

- 대부분의 서원은 상하의 축선을 기준으로 각 공간을 단계적으로 설정

독자성

- ‘한국의 서원’은 서원의 도입 과정에서 다양한 건축 배치 기법 적용
- 공유된 건축 전형을 바탕으로 환경, 성리학적 이상에 적합한 건축적 독창성 확인됨
- 각 건축 요소에 성리학 가치관 투영, 공간별 창의적 건축물, 건축 구조 형성

공간 구분

제향공간

- 건물: 사우, 전사청, 제기고 등
- 담장으로 둘러싸여 다른 공간과 엄격하게 구분
- 사우는 가장 높은 위계로 여겨지며 독립된 영역으로 구성, 별도 출입문 설치
 - 사우: 선현을 제향하는 공간
 - 전사청: 제물, 제관이 대기하는 장소
 - 제기고: 제향에 필요한 도구 보관 장소

‘한국의 서원’ 서원별 세계유산가치

서원명	세계유산가치
영주 소수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로 건립된 서원 강학, 제향 관련 규정하여 서원제도 근간 마련
함양 남계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사람들만에 의해 설립된 사례 강당과 사당, 문루가 일렬로 배치되는 전형적인 서원 건축의 배치방식
경주 옥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판, 장서의 중심기구로서 서원 역할 정립 누마루를 도입하여 교류와 유식 기능 효과적 수행
안동 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문과 학파 중심기구로 발전하는 전형 수립 서원 운동의 중심지로 성장
장성 필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 평지 건축물 배치의 전형 완성
달성 도동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규, 강규 등 서원 교육 방식의 구체적 양상 입증 경사지 활용한 서원 건축 배치의 전형 완성
안동 별산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론장으로서의 서원 기능 입증 입지경관과 누마루 조화의 탁월성
정읍 무성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확대 모색 향촌 교화 위해 교육과 사회적 근거지에 설립
논산 돈암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리학의 실천적 이론인 예학을 한국적으로 완성한 거점 예에 기반을 둔 건축제도 완성

장성 필암서원

01. 장성 필암서원 개요

1) 필암서원의 역사

(1) 건립

건립 배경

- 1564년 옥과에서 김인후를 제향하기 위하여 영귀정사(詠歸亭祠) 건립
- 1570년 순창(淳昌)에서 김인후를 추모하기 위하여 어암사(魚巖祠) 건립
- 김인후를 추모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는 과정에서 필암서원 건립

건립 과정

- 1590년 김인후의 문인 기효간(奇孝謙, 1530~1593), 변성온(卞成溫, 1540~1614), 변이중(邊以中, 1546~1611) 등이 뜻을 모아 장성 부 서쪽 10리 기산(岐山) 아래에 사우(祠宇) 건립
- 전라감사(全羅監司) 윤두수(尹斗壽, 1533~1601) 발의, 정철(鄭澈, 1536~1593) 후원
-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왜군의 방화로 소실

필암의 의미

- 김인후의 태생지인 황룡면 맥호리 맥동마을 입구의 붓바위 筆巖에서 비롯
- 풍수지리학에서 터를 잡은 곳에 붓 모양의 산이나 바위가 있으면 대학자가 난다고 함

(3)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장성 필암서원 정밀실증조사보고서』 2014, 『서원향사』 필암서원 참고

필암서원 구원규(舊院規)

- 원장院長은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지위가 높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천망薦望할 것
- 원이院貳는 본도本道 내의 지위가 높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천망할 것
- 진신장의摺紳掌議는 본도 내의 지위가 있고 학문이 특히 우수한 사람을 천망할 것
- 유림장의儒林掌議 도道, 군郡 간의 유림儒林 중 문행文行과 신망이 있는 사람을 천망할 것
- 유림색장儒林色掌도 유림 중 문행과 신망이 있고 서원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을 천망할 것
- 유사有司 3인 중 1인—속칭 당장堂掌—은 서재西齋의 유생 중 인품이 언행을 삼가고 글과 산수에 뛰어난 사람으로서 서원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을 택하여 일을 맡길 것

- 1624년 김인후의 문인들이 필암서원의 복설 추진, 증산龜山 아래로 옮겨서 건립
- 1672년 증산동의 지대가 낮고 경사져서 수해를 입을 우려가 있고, 사액서원답게 건물의 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해타리海打里, 현 필암리로 이건

필암서원 재정 마련

- 1672년 이건 당시 집권 서인세력의 전폭적 지원과 협조 확인
-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의 초대 원장으로 기록된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이 서원 이건에 적극 참여
- 서인의 영수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의 아우 송시도宋時燾, 1613~1689가 장성부사로 부임해 이건의 마무리 지원
- 유생 이실지李實之, 박승화朴升華 등이 참여하여 감독하며 서원 공사

(2) 사액

필암서원 사액

- 1658년 오이익뒸以翼, 1618~1666을 소두疏頭로 하여 전라도 유생들의 연명 장소로 사액 요청
- 1659년 필암筆巖이라는 액호 결정
- 1662년 실제 사액 이루어지고, 조정에서 예관이 내려와 치제致祭

- 장재유사掌財有司는 본래 규례規例에 없다가 강수청講修廳을 설치하면서 처음 두었고, 본손本孫과 유림 중 청렴하고 공정하며 부유한 사람을 선정하여 겸임하게 할 것
- 원장과 원이가 본원本院을 대표할 것
- 장의와 색장은 월분향月焚香과 향사享祀 의식, 재산 수입과 지출 사무를 전담하여 사원祠院을 반드시 보존하고 유림의 기강을 반드시 바로잡을 것
- 유사는 향사 시 의절의 봉행과 서원 내의 집물什物 등을 자세히 조사, 보관, 일상적인 문서를 일일이 담당하여 맡을 것
- 장재유사는 장색掌色의 재산의 수입과 지출 통지에 의거하여 모두 인식하여 남으면 보관하고 부족하면 빌릴 것
- 원장, 원이는 임기가 없고 진신摺紳은 3년이며 장색은 3년을 채우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면 재임할 것
- 유사는 임기가 없지만 잘못이 있으면 바꾸어 뽑을 것
- 장재유사의 임기는 4년을 채우고 경우에 따라 재임할 것
- 춘추향사 소집 시 이외에 서원 내에 큰 일이 있으면 장색이 원장에게 아뢴 후에 진행할 것
- 의결은 회원의 다수에 따라 결정하고 가부가 반반이면 장의가 결정하여 처리할 것
- 재산의 경리經理에서 춘추향사비, 재산관리비, 영선비營繕費, 분향비, 회의 및 강회비는 지출 후 일용부日用簿에 의거하여 색장色掌이 연말에 통지하면 장재掌財가 매년 추향 회의에서 보고할 것

- 원임이 교체되어 문서와 장부를 인계할 시 신규 임원이 서책書冊, 제기祭器, 제구祭具, 집물을 점검하여 주고받으며 절대 문밖으로 빌려주지 말 것

필암서원 신원규(新院規)

- 구원규 외에 부득이하여 고치치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이하라
- 도유사都有司는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덕망이 높은 사람을 천망薦望하라
- 도장의道掌儀, 도색장道色掌은 도내 유림 중 덕망이 높은 자를 천망하라
- 장의, 색장은 향내 유림 중 문행文行이 있고 사물에 밝은 사람으로 선정하라
- 향사 후에 반드시 강회講會를 열고, 난잡한 술자리, 잡담, 시가詩歌, 바둑, 장기 등의 유희遊戲를 일절 금하라
- 제관祭官과 산양계원山仰契員은 반드시 유림 세가世家 중 학문이 있고 행동이 도리에 맞는 사람으로 하라
- 서책과 문적文蹟은 잠시라도 빌려나갈 수 없다
- 산양계山仰契는 오직 서원 운영을 위한 것으로 별도로 임원을 두어 매 행사 후에 반드시 경리經理를 보고할 것
- 원임院任, 원유院儒가 된 사람은 반드시 학문을 연구하고 행실을 닦아 사림의 귀감이 되고자 기도하라

필암서원 원임(院任)

- 원장院長, 원이院貳, 진신장의摺紳掌議, 유림장의儒林掌議, 유림색장儒林色掌, 유사有司 등으로 구성

- 원장, 원이는 중앙정계의 고위관료나 산림^{山林} 선임
- 진신장의는 장성 또는 인근지역 지방관 선임
- 유림장의는 장성과 인근지역 사족 선임
- 경원장^{京院長}은 서인 또는 노론의 영수가 맡음
- 원이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대체로 선출되지 않음
- 관련 유물: 『원장선생안^{院長先生案}』

원생(院生)

- 서원을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요소
- 나이에 상관없이 학문에 힘쓰고자 하는 자를 모두 입원하도록 규정
- 신분에 대한 별도의 제한규정 없음
- 관련 유물: 『입원록^{入院錄}』

필암서원 재정

- 『노비전답안^{奴婢田畵案}』 등을 통해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이 정립되는 단계 보여줌
- 서원의 경제적 기반, 관련 토지, 노비를 포함한 경제 운영 전반 기록이 상세하게 남음
- 노비의 명단과 계보도인 『노비보^{奴婢譜}』 현존, 한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노비 족보로 출신, 가족관계 정보 수록
- 필암^{筆巖}, 중동^{中洞}, 장자^{壯子} 세 마을이 서원촌으로서 향사 거행 시 각종 역과 제수^{祭需} 담당
- 원속^{院屬}들이 일정량의 돈이나 현물 납부

2) 필암서원의 공간 구성

필암서원의 입지

-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
- 뒤편에 야산을 등지고 전면에 평야가 펼쳐진 평지에 입지
- 누마루인 확연루에서 야경 경관을 감상할 수 있음
- 평지형 서원 배치의 하나의 전형
- 기산은 김인후의 고향인 맥동 근처에 입지

건물배치도

- 다른 서원과 달리 강당이 입구를 등지고 산 아래의 사당을 바라보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독특한 예경관^{禮景觀} 구현
- 중심축선상에 중심 건물이 있고 동재, 서재를 좌우 대칭으로 배열
- 누문^{樓門} 형식의 확연루
- 전형적인 전학후묘 배치



02. 강학

건물

청절당(淸節堂)

- 목적: 원장과 원이의 기거, 학생의 강학, 회의
- 청절淸節: 인종仁宗, 재위 1544~1545이 승하하자, 절개를 지켜 몸을 숨기고 벼슬길을 끊은 김인후의 인의仁義를 상징
- 정면 5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
- 중앙 3칸이 강당, 측면 1칸씩은 각각 원장과 원이가 기거하는 운동방
- 본래 진원현珍原縣 객사를 1672년 옮겨온 것
- * 진원현: 전남 장성군 진원면의 옛 행정구역

청절당 관련 유물

필암서원 현판

- 1662년 사액
- 필암: 김인후의 고향 마을 입구에 있는 붓 모양의 바위 이름에서 기원
- 윤봉구尹鳳九, 1683~1767의 글씨
- 임인壬寅 정월正月 일에 사액

청절당 현판

- 송준길宋浚吉, 1606~1672의 글씨로 전해짐

전교(傳敎)

- 1691년 8월 숙종肅宗, 재위 1674~1720이 내린 전교
- 학교 설치를 통한 흥학興學과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강조
- 숙종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1710년 게판

백록동학규(白鹿洞學規)

- 송나라 주희朱熹, 1130~1200가 백록동서원을 복구하며 지은 학규
- 참된 군자로서 수행해야 할 오교지목五敎之目, 위학지서偶學之書, 수신지요修身之要, 처사지요處事之要, 접물지요接物之要 등의 내용 기재
- 김인후는 평소 백록동 학규를 모범으로 제자 교육
- 후반부는 김인후가 지은 독백록동규讀白鹿洞規라는 시

문묘종사반교문(文廟從祀頒敎文)

- 1796년 정조正祖, 재위 1777~1800가 김인후를 문묘에 종향한 후 그의 행적과 학문을 높이 칭송한 교서
- 예문관제학藝文館提學 구상具庠, 1730~?이 지음

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 문묘승배축문(文廟陞拜祝文)

- 김인후를 문묘에 종사한 후 정조가 내린 첫 번째 교서
- 김인후를 해동海東의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이자 호남湖南의 공자孔子로 칭송
- 김인후를 은殷나라의 뛰어난 신하인 부열傅說, 이윤伊尹에 비유
- 교서는 예문관제학 구상이 짓고, 축문은 홍문관 교리 박재순朴載淳이 지음

강희 원년(현종 3년) 사액 치제문

- 1662년 예조정랑禮曹正郎 윤형계尹衡啓, 1594~1675가 왕명을 받아 치제할 때 작성된 치제문致祭文
- 지제교知製敎 신상申尙, 1598~1662 작성
- 김인후의 학문적 업적과 덕성을 칭송하는 내용

원중집강기(院中執綱記)

- 서원의 원임의 직임과 명단을 기재한 기판

집사분정기(執事分定記)

- 필암서원 춘추 향사 때 헌관, 집사의 직임과 명단 기재

전사	사준	찬인	찬차	알자	전작	봉작	봉로	춘향	대축	집례	진설	헌관	헌관	헌관	집사분정기
----	----	----	----	----	----	----	----	----	----	----	----	----	----	----	-------

갑인 8월 일 간	제학 관세	척기	세작	장생
--------------------	----------	----	----	----

고암선생(鼓巖先生) 추배시(追配時) 유림(儒林) 상언(上言)

- 고암 양자징梁子激, 1523~1594을 배향할 때 유림들이 상언한 내용과 의조儀曹, 예조의 회계回啓에 대한 임금의 비답批答
- 김이현金履鉉 작성

필암서원중수기(筆巖書院重修記)

- 1888년 군수郡守 김승집金升集 등이 필암서원을 중수한 내용

- 김승집 작성
- 1889년 3월에 게판

어제사제문(御製賜祭文)

- 1786년 정조의 명으로 치제를 시행할 때 제문
- 정조 작성
- 좌부승지左副承旨 박천행朴天行을 보내어 치제함

강수재(講修齋)

- 강수재의 원임의 직임 기재
- 강장講長, 접유사接有司, 장재유사掌財有司
- 계해癸亥 5월 일

진덕재(進德齋)·송의재(崇義齋)

- 목적: 학생들의 기숙과 개인 학습 공간
- 영조와 고종 때 중수, 개수
- 다른 서원과 달리 강당과 사우 사이에 재사 배치
- 진덕재는 1887년 중건
- 정면 4칸, 측면 1.5칸의 맞배지붕 건물

진덕재, 송의재 관련 유물진덕재 현판

- 송준길宋浚吉, 1606~1672 작성

송의재 현판

- 송준길 작성

교육

-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은 서원의 주요 기능

김인후의 강학 활동

- 스승 김안국^{金安國}, 1478~1543으로부터 배운 『소학^{小學}』을 중 요시
- 순창 점암촌 훈몽재, 장성 맥동에서 강학 활동
- 장성에서 강론을 하면서 철학적 견해를 적극적으로 펼쳐 성리학 체계 정립

필암서원 강학

-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분향하고 청절당에서 강회 개최
- 원임이 강관^{講官}이 되어 제술^{製述}, 강경^{講經}을 나누어 강의를 맡음
- 우수자에게 종이를 상으로 내리고, 반대의 경우에는 벌로 종이를 내도록 함
- 불참자나 시간을 지키지 못한 자도 벌로 종이를 내도록 함
- 1775년 강수청^{講受廳}을 만들고 강장^{講長}을 두어 유생 교육 담당하도록 함

필암서원 문적(文籍)

- 나라에서 내려준 내사본^{內賜本}이 많음
- 1802년 『필암서원원적^{筆巖書院院籍}』의 서책질^{書冊秩}에는 서책 30종 234권, 책판질^{冊版秩}에는 목판 6종 525입^立 기재

경장각(敬藏閣)

- 목적: 조선시대 국왕이 서원에 하사한 전적들과 서원의 강학 활동과 관련된 교재 등 보관
- 인종이 하사한 묵죽각판^{墨竹刻板} 보관
- 장서들은 현재 유물전시관에서 보관
- 정면 3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

경장각 관련 유물

경장각 현판

- 김인후를 문묘에 배향할 때 정조가 내린 내탕금^{內帑金}으로 세운 것
- 정조의 어필
- * 내탕금: 내탕(임금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던 곳)에 둔 금이나 돈

장판각(藏板閣)

- 서원에서 생산된 목판 등 보관
- 1971년 건립
- 현재까지 해당 건물에 목판 보관 중

장판각 관련 유물

장판각 현판

- 작자 및 시기 미상

- 우동^{祐東}: 김인후 신도비문에 있는 ‘하늘의 도움^祐으로 동방^東方に 태어났다’라는 의미
- 중앙 북쪽 벽에 김인후, 동쪽 벽에 양자징의 위패 봉안
- 전에는 필암서원 편액이 이곳에 걸려 있었음
-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우동사 관련 유물

우동사 현판

- 안규용^{安圭容}, 1873~1959가 명명하여 주희의 글씨를 집자하여 작성

전사청(典祀廳)

- 목적: 제향 관련 제기 보관 및 제향 준비
- 정면 1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
- 사우를 두르는 담장 바깥이 정면으로 담장 안의 사우 공간에서 출입 불가

기타

계생비(繼牲碑)와 묘정비(廟庭碑)

- 전면: 계생비 / 후면: 묘정비
- 계생비는 향사에 쓸 가축을 매어 놓는 비
- 제사에 쓸 동물을 묶어 놓고 제관들이 그 주위를 돌면서 제물로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충돌례 진행

- 『오경백편』, 『좌전춘추』, 『아송』, 『규장전운』, 『향례합편』, 『삼강행실』, 『이륜행실』이 내사본
- 1796년 김인후의 문집 판각, 김인후가 지은 『초천자문』, 『무이구곡』, 『백련초해』 등은 필암서원에서 판각하여 간행, 목판 보관
- * 관련 유물: 「필암서원 문적일괄」, 「김인후 관련문서」

03. 제향

인물

김인후(金麟厚)

- 자는 후지^{厚之}, 호는 하서^{河西}, 담재^{湛齋}, 시호는 문정^{文正}
- 저서: 『하서집^{河西集}』, 『주역관상편^{周易觀象篇}』, 『서명사천도^{西銘事天圖}』, 『백련초해^{百聯抄解}』 등

양자징(梁子澂)

- 자는 중명^{仲明}, 호는 고암^{鼓岩}
- 고암은 소재원 동쪽 옹정봉 뒷자락에 있는 바위 이름에서 유래

건물

우동사(祐東祠)

- 제향인물인 김인후와 양자징의 위패 봉안

- 묘정비는 서원의 건립 취지와 연혁, 서원에 모셔진 인물에 대해 기록한 비석, 서원비書院碑라고도 부름

의례

필암서원 향사(享祀)

- 필암서원 향사 일시는 중춘仲春, 음력2월, 중추中秋, 음력 8월 중정일中丁日
- * 중정일: 한 달 중 십간의 정丁이 속하는 날이 세 번 있는데 그 중 두 번째
- 춘추 향사의 특징은 희생에 쓸 가축을 살피는 '성생례'를 성생단이 아닌 계생비繫牲碑에서 진행
- 일반 서원은 주향에만 독축을 하지만, 필암서원에서는 배향 위에도 별도의 독축을 함

필암서원 향사 준비

① 제관선정

- 필암서원의 경우 춘향례는 음력 1월 보름, 추향례는 7월 보름에 초집招集
- 향례를 진행할 삼헌관, 대축, 집례 및 집사들을 정하고, 이들에 대한 망기 작성

② 제주(祭酒) 담그기

- 고직사에서 향사일을 계산하여 미리 담금
- 김인후가 즐겨 마신 술인 청명주를 빚음

③ 제수 준비

- 유사와 임원이 2~3일 전에 가까운 장에서 장만

④ 입재(入齋)

- 유사와 임원, 삼헌관과 대축, 집례는 향사 전날 서원에 모임
- 제물봉진례祭物奉進禮에 필요한 제수봉진기祭需奉進記 작성

⑤ 강회(講會)

- 헌관 및 집사가 향사 전날 강당에 모여 각자 평소 즐기던 문장을 돌아가며 낭독
- 향사일에는 시제에 따라 각자 시를 지어 발표
- 선현에 대한 존경과 가르침을 일깨우기 위하여 진행

⑥ 당일 입재

- 제관은 본래 전일 입재가 원칙, 일반 참가자들은 당일 입재
- 확연루 아래 시도소時到所에서 시도기時到記 작성

⑦ 집사분정(執事分定)

- 필암서원은 헌관을 중심으로 강당에 모여 집사자를 확인하여 재분정
- 분정 된 집사 이름을 각각 써서 청절당에 걸린 분정기판에 붙임

⑧ 제물봉진례(祭物奉進禮)

- 진설 전 여러 제관이 강당에 모여 제물을 호칭하며 확인

- 확인 후 제관들은 읊을 하고, 대축은 제수봉진기(祭需奉進記)에 확인 표시

⑨ 진설(陳設)

- 제물 확인이 끝나면 제물을 가자에 싣고 사우로 옮긴 후 진설

⑩ 사축

- 진설을 마치면 우동사 앞에서 축문 작성

필암서원 향사 절차

① 취위(就位)

- 향사 전 초헌관이 찬인과 알자의 인도 하에 사당으로 들어가 진설을 살펴봄
- 향사는 집례가 향례의 진행 순서를 적은 홀기(笏記)를 낭독하는 것으로 시작
- 축이 사당 안으로 들어가 주향위와 배향위의 주독을 여는 개독(開讀) 시행

② 전폐례(奠幣禮)

- 초헌관이 찬인의 인도 하에 신위전에 세 번 향을 향로에 넣는 분향례,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로 구성
- 필암서원 행례 동선은 동입서출

③ 초헌례(初獻禮)

- 초헌관이 신위전에 처음으로 헌작하는 의례
- 필암서원은 주향위와 배향위 모두에 독축

④ 아헌례(亞獻禮)

- 아헌관이 신위전에 두 번째로 헌작하는 의례
- 독축이 없는 것 외에는 초헌례와 동일

⑤ 종헌례(終獻禮)

- 종헌관이 신위전에 세 번째로 헌작하는 의례
- 필암서원에서는 종헌례 후 음복례가 아닌 삼헌관이 함께 재배

⑥ 음복례(飲福禮) (철변두 포함)

- 초헌관이 대표로 음복위에 나아가 서향하여 신이 흠향한 술과 조육을 맛보는 의례

⑦ 망료례(望燎禮)

- 축문을 구덩이에 묻거나 태워 넣음

⑧ 강의와 음복(飲福)

- 다른 서원의 경우 제례를 마치면 이번 제향을 점검하는 제공사(祭公事) 또는 제사공론(祭祀公論)을 행함
- 필암서원의 경우 제물분포례(祭物分脯禮)를 하고, 초헌관의 강의를 들음
- 강의를 끝난 후 음복

필암서원 향사의 특징

- 예전에는 제물로 쓸 희생을 매어놓고 생간례 진행, 다른 서원의 경우 성생단省牲壇이 서원 밖이나 강당 옆에 있는데, 필암서원은 계생비를 사당문 앞에 세움
- 진설 전 강당에서 제물봉진례 시행
- 다른 서원은 동입동출이 원칙인 곳이 많지만, 필암서원의 경우 동입서출의 원칙 고수
- 향례를 마친 후 분포례를 별도로 봉행

* 자세한 사항은 『서원향사』 필암서원 참고

04. 교류와 유식

- 교류와 유식 공간은 유산을 둘러싼 자연과 통하는 공간으로 서 정자, 누마루 등으로 구성
- 서원과 서원, 유학자와 유학자들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론을 형성
- 유식 공간으로써 경관을 바라보며 시를 짓는 등 보다 자유로운 학습 공간

건물

확연루(廓然樓)

- 서원 내·외부 사람들의 교류 및 유식을 위한 곳

- 확연廓然: ‘군자의 학문이 넓고廓然 공정하여, 사물이 이르면 순응한다’는 정호程顥, 1032~1085의 말에서 가져온 것
- 정면 3칸, 측면 3칸의 팔작지붕 건물
- 2층 건물로 1층은 누문樓門 역할

장성 필암서원의 세계유산 가치

평지형 서원 배치의 전형

- 1590년 건립된 서원
- 장성 지역 사림에 의해 건립
- 서원의 경제적 운영방식 정형화
- 호남 지역 사림 여론 형성의 진원지이자, 명사들의 학문 토론 현장
- 강당과 동재·서재가 사우(祠宇)를 바라보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위계를 부여한 평지형 서원의 전형
- 강당을 지켜보는 사우가 의례적, 실질적인 중심 역할을 하도록 배치

주요특징

- 구성 및 입지

- 서원의 일반적 구성(사우, 강당, 재사, 누마루) 정조가 하사한 서책을 보존했던 경장각을 별도로 조성. 농지를 전면으로 한 야경(野景) 입지의 전형이며, 경사지가 아닌 평지에 입지

- 특징

- 「노비보」·「노비안」·「양안」 자료를 비롯하여 서원의 경제적 기반을 파악할 수 있는 고문서 자료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음

MEMO

MEMO

MEMO



본 사업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필암서원



본 사업은 문화재청 세계유산 홍보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습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



'전담해설사' 교육 교재
파일로 연결됩니다.

(재)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